



빙그레 썬메리 부평 한화마트점

첫 할인점 진출 ... 휘셀, 안토와누 등 프랑스빵 주축



1 이 점포는 휘셀, 안토와누, 크로와상 등 프랑스빵을 주축으로 120여가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 날개 판매를 고수하고 있고 고객이 매장에 비치된 사각 종이 박스에 제품을 담아오면 비닐 랩을 씌워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빙그레가 지난해 12월 18일 부평 한화마트에 14번째 썬메리 점포를 오픈했다. 빙그레는 이번 부평 한화마트점 오픈을 계기로 내부 정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썬메리 부평 한화마트점은 36평 규모로 프랑스빵을 주축으로 120가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평일 250만원, 주말 31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은 오픈 당시 할인점에 입점했음에도 시중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원부재로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중가격이 20% 내외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빙그레측은 당분간 현재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제품의 가격을 살펴보면 식빵(소형) 1,400원, 앙금빵 550원, 휘셀 950원, 바게트 1,600원, 생크림 케이크(3호) 15,000원에 각각 형성돼 있다.

이곳의 특징은 할인점의 특징인 묶음 판매를 배제하고 철저히 날개 판매를 고수하는 점이다. 고객이 매장 앞에 비치된 사각 종이 박스에 제품을 담아오면 계산대에서 랩을 씌워 판매한다. 대표적 인기 품목인 안토와누 같이 크기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반으로 잘라 판매하기도 한다.

빙그레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출점수는 직영 4개, 가맹점 10개. 특히 가맹점은 지난해말 밝힌 대로 자사 과장급 이상 명예퇴직자가 점주로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빙그레는 가맹점 희망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의 기술 및 운영 교육을 실시했고 창업준비금으로 1억 4천만원을 1년 거치 4년 무이자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직영점 개설에만 주력해 온 빙그레 썬메리가 이번 자사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가맹사업에 뛰어들어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